

# 새로 나온 詩集

## 산에 내 몸을 비벼

李盛夫 지음

첫시집 「이성부시집」(69)에서부터 지난해 출간된 「빈 산 뒤에 두고」에 이르기까지 발표된 시들중 대표작을 모은 시선집. 각 시집별로 74편의 시들을 5부로 나누어 묶었는데, 60년대와 70년대는 글쓰기를, 80년대는 山行을 ‘습관’으로 했다는 시인의 말처럼 그동안의 시인의 시적 변모를 엿볼 수 있다. ‘시를 위한 산문’ 6편이 함께 수록되어 있다.

문학세계사 / B6신 / 142면 / 2400원

## 감격시대

오한호 지음

61년 「시문학」으로 데뷔, 미래시 동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시인의 제3시집. 현재 침례신학대학 교수로 재직중인 시인이 신앙인으로서 쓴 ‘말씀의 시’ 60여편을 묶었다. 지난 3년간의 미국생활에서 씌어진 시들을 중심으로 ‘신앙과 백에 관한 시들’ ‘절기에 대한 명상’ 연작시 ‘잔 영감에 대한 추억’ 그리고 長詩의 4부로 나누고, 시인 자신의 시해설이 곁들여 있다.

종로서적 / B6신 / 108면 / 2000원

## 사랑으로 빛나는 시어 모음집

조성화 엮음

올해 경향신문 신춘문예로 등단,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시인이 ‘누구나 시에 좀더 친밀하게 접근’하자는 의도로 엮어낸 사랑시어 모음. 신달자, 강경화, 유안진, 이해인, 김남조, 김초혜, 김승희, 황인숙, 강계순, 강은교 등 여류시인들의 시에서 사랑에 관계된 시어들을 유형별로 분류한 527편이 수록되어 있다. 청소년 독자를 위해 모두 한글로 표기한 것이 특색.

늘푸른 / A5신 / 222면 / 3000원

## 아무것도 아닐 것이

金玉熙 지음

현직 교고교사인 시인의 「술한잔 말 한 집시」에 이은 제2시집. 전체 6부로 70편의 시들이 수록되어 있는데, “존재의 양태여하를 막론하고 결국은 아무 것도 아닐 것이라는 보편적 진리 속에서, ‘아무 것도 아닐 것이 아닌’ 의미체로서의 삶의 지향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풍자적 기법의 시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평론가 김용태씨의 해설이 서문으로

수록되어 있다.

경운출판사 / B6신 / 120면 / 2000원

## 별들의 바탕은 어둠이 마땅하다

鄭鎭圭 지음

1960년 동아일보 신춘문예로 등단, 올해로 詩歷 30년째를 맞는 중견시인의 신작시집. “요즈음의 내 사유의 세계를 집약할 수 있는 말”이라는 ‘몸’시와 ‘밥’시 연작을 비롯해서 ‘물고기’ ‘직선의 힘을 믿겠다 나는’ 등 50여편의 시가 3부로 나뉘어 실려있다. 시인의 시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제 소리를 위하여’ ‘나의 시정신’ 등 최근에 쓴 산문 4편을 같이 묶었다.

문학세계사 / B6신 / 138면 / 2400원

## 아버지의 손

오철수 지음

「민」을 통해 작품활동을 시작, 89년부터 집단창작 활동을 주도하고 있는 젊은 시인의 첫시집. ‘아버지의 손’ 연작시를 비롯, 30여편의 시를 통해 진정한 노동자의 삶과 인간해방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데, 진솔한 필체와 탄탄한 미학적 감각이 돋보인다. “혁명적 낙관 그리고 현실의 흐름을 파악하고자 하는 이상의 힘이 날카롭게 관철되어 있다”는 것이 시인 이규배씨의 평.

작은책 / B6신 / 166면 / 2200원

## 그리움 쏘아올리기

林知賢 지음

「心象」으로 데뷔, 첫시집 「대보름달 해방촌」 이후 5년만에 펴내는 시인의 제2시집. 세상살이나 현실상황에 대한 분노와 저항을 시의 기저로 하면서도 존재의 아픔이나 삶의 가변성, 불안정성에 대한 인식이 배어나는 지적 준열성과 서정성의 균형이 돋보인다. 이것이 평론가 이유식씨의 평. 80여편의 시가 8부로 나뉘어 묶여있다.

호통불 / A5 / 182면 / 2000원

## 꿈꾸는 눈썹

문정희 지음

「월간문학」으로 데뷔, 시집 「꽃숨」 「혼자 무너지는 종소리」 등을 발표하는 한편, 시극과 수필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 시인의 신작시집. 90여편의 시들을 ‘바람의 아내’ ‘술병의

노래’ ‘가을 누이에게’의 3부로 나누어 묶었는데, 평론가 김선학씨는 “한국 현대 시인 중에서 가장 감각적인 언어구사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평가.

신원문화사 / B6신 / 140면 / 2000원

## 이 땅의 그리움을 알기 시작했다

80년대 시조동인 엮음

“현대시조는 고시조의 최소한의 형식만을 취해 창출된 새로운 세계관과 만나는 새로운 문학장르”라는 인식하에 김종섭, 吳鍾文, 정공량, 丁秀子, 정일근, 黃仁源, 이지엽 등으로 구성된 시조동인의 3번째 작품집. 과격적 형식과 다양한 소재로 실험적 작업을 보여주는 시들이 눈길을 끈다. 박덕규, 박시교, 김학성 등이 참가한 특별좌담 ‘현대시조 어떻게 나아가 갈 것인가’가 부록으로 실려있다.

문학세계사 / B6신 / 116면 / 2400원

## 하늘 그리움

하정완 지음

그림, 노래, 사진이 어우러진 노래극 「바다꽃 이야기」로 관심을 모았던 목사시인의 본격적인 시집. “굽이쳐오르는 / 숨결들은 / 매일매일 죽음을 입고 / 오직 / 그분 안에서만 / 평안함이 살아나는”이라고 고백하는 서시를 비롯, ‘그리움’ 연작시 18편과 함께 따스한 공동체적 삶을 지향하는 시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별이야기’ 등 우화형식의 시들이 그림과 함께 실려있다.

박우사 / B6신 / 114면 / 2000원

## 사랑하는 아들을 위한 기도

오성세 지음

“단 한 편만이라도 / 아름다운 詩를 쓰고 싶은 詩人은 / 어쩌다 自然의 아름다움에 / 心醉한 마음을 쏟으려 하면 / 어느새 일어나는 亂世의 波紋”이라 ‘긴 한숨’ 쉬며 시인의 걱정과 사랑을 ‘인내의 章’으로 수렴, ‘淨化’의 차원으로 승화시키고 있다. 평범하고 소박한 심상의 시 75편이 6부로 나뉘어, 故 이범선씨의 시인에 관한 수필과 함께 실려있다.

한불문화출판 / B6신 / 168면 / 2500원

## 얼굴 없는 여인

金市宗 지음

67년 중앙일보 신춘문예로 등단, 지금까지

지방문단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오고 있는 시인의 11번째 시집. 풍자와 해학을 통한 현실 비판적 시 70편을 5부로 나누어 묶었는데, “가을에는 하도 부조할 데가 많아 / 은행나무도 금화를 툭툭 다 털어주고 / 알몸으로 거리에 나섰다”는 현실에 대한 독특한 은유가 눈길을 끌며, 시인에 대한 詩評 2편이 함께 수록되어 있다.

시문학사 / B6신 / 116면 / 2000원

## 살아있는 死者

李相大 지음

철학교수이자 시인인 저자가 「不條理」 이후 20여년간 써왔던 시들을 묶은 시집. “나는 늘 가을길 한다 / 형태도 없는 자만 들고 / 많고 적은걸 재지 않고 / 난간에서 버랑을 재다가 / 길고 짧은 것 모두 잃고 / 눈금 없는 자만 들고 고독하다”는, 역사 속에 예측된 인간으로서의 고뇌와 지시간 정치·사회적 사건들을 상징한 시편들이 별다른 시적 기교없이 담백하게 펼쳐지고 있다. 휘털린 시에 대한 해설도 함께 수록.

正信社 / B6신 / 168면 / 3500원

## 무채색 사랑

윤영신 지음

제주도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젊은 시인의 첫시집. 영국,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지의 여행경험을 바탕으로 한 싱싱하고 정갈한 분위기의 戀詩 50여편이 수록되어 있다. 자연스럽게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작은 항해자처럼 삶이 바다와 지속적으로 이어져 있고 생명의 약동이 쉬지않고 움직이고 있음”을 느낄 수 있는 ‘포용력 있는’ 시어들이 눈에 띈다.

오늘 / B6신 / 120면 / 2500원

## 후회없는 고독

조병화 지음

1949년 첫시집 「버리고 싶은 유산」 출간 이후 지금까지 왕성한 작품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원로시인의 제34시집. “다작이라는 먼 마을 닭소리 같은 어리석은 자의 말까지 들으면서”도 “참으로 이젠 내 생애 아무런 ‘후회없는 고독’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고백하는 시인의 근작시들이 유년기, 청소년기, 노년기에 이르는 자신의 생애에 대한 술화와 함께 4부로 나뉘어 수록되어 있다.

미학사 / A5 / 178면 / 3000원